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 Our God 우리 주 하나님 /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같이
대표기도		원태연
*성경봉독	롬13:11-14	정한이
말씀	제자의 삶 – “성령으로 옷 입는 삶”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목수의 이야기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목수의 이야기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닫힌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 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의 삶 – “성령으로 옷 입는 삶” (롬13:11-14)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데 옷차림은 인상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뿐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옷을 입는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좇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실 때가 다가올 때, 마치 자녀를 두고 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성령만 받으면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이, 혹은 그 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나요? 머뭇거리시는 분들께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전 12:3)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롬 8:15-16)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고전 2:12)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닫게 돕는 것’입니다. 비록 희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한 줄기 빛 붙잡고 나가다 보면 분명 견고한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채산 가능성 이야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이시면 사실 내 모든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느끼면 자유함과 평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그 때부터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에 반해,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면 충만함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운이 나를 통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엡 5:18)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신 직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 그들에게는 담대함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들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세상의 방식을 뛰어 넘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에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순절 이후 보혜사 성령은 인간에게 보낸 바 되었기에 우리는 언제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를 받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새끼 새들이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듯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죄된 마음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니다. 설교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경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조용히 찬양하는 중에, 혹은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묵상하는 중에도 성령님은 내 심령을 터치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산책

본문말씀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이죠. 그러고는 죄를 떠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갈5:22-23) 보통 성령의 열매라 하면 뭔가 놀라운 권능의 것들이 떠오르는데, 말씀은 오히려 나의 내면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나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즉, 예수 제자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격려와 권면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좇아 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름 날 시원한 바람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성령님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나요?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 나의 상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 중 어느 쪽에 가깝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갈라디아서 5장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 내게 무르익은 열매들과 아직 풋풋한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하단부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
강한빛 권준혁 배윤지 이다함 이중원 정혜원 조혜연 최민우 허주안 (9명)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2023 찬양의 밤
10/27(금) 저녁 (세부 시간/장소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팀과 회중이 하나되는 포맷으로 모여 찬양, 기도, 말씀듣는 예배 시간
예배 후에는 캠프파이어 시간 계획 중
할로윈을 맞아 우리의 영을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Bridge" UT 캠퍼스 사역
매주 목 11:30-1:30, WCP 1.118호실 (맛있는 점심 제공)
AKPC 청년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교회, 비기독교인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주는 Mid term 대비 기도회로 진행 예정입니다.

선교사님 초청 청년부 예배
10/15(주일): 김명환 선교사님 (에디오피아 마장족) "성경번역의 효과"
11/5(주일): 이은상 선교사님
두 분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 Psalm 공동체에 선교적 heart가 싹틔우길 소망합니다.

Just Show Up 가을학기 모임
매주 화 저녁 8시 (줌)으로 진행중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조학영, 안혜성 자매에게 연락)

2023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마감/10월 22일(주일)
접수 및 문의: 교회 홈페이지(akpc.org)/장학위원회(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헌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기금마련 음식 판매 (월 1회)
10/15 (주일), 돈까스 판매 (로비에서)

Fall Festival (교회 전체행사)
10월 28일 (토) 오후 5시~8시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 AKPC 가을 축제"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51권 40호
10
08
23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512 454 1727
FAX 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AKPC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